



# 100 Winds 100 Wishes

## 100개의 바람

편집부  
Editorial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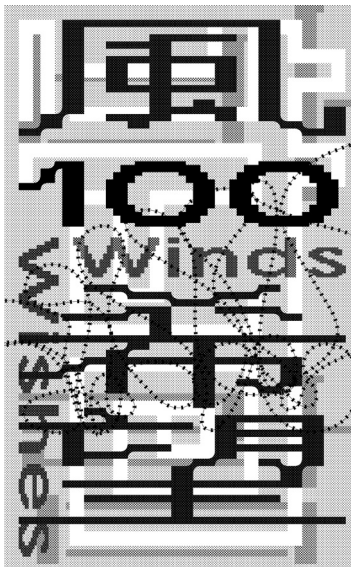
〈DMZ 아트프로젝트-다시, 평화〉

회화 설치 작품: 강익중, 무늬만커뮤니티, 백남준, 송창, 이영섭, 정현  
깃발 설치 작품: 김재이, 김태룡, 용세라, 제임스 채, 채병록, 최문수  
퍼포먼스: 안은미컴퍼니,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전시감독: 박종길  
100개의 바람 기획: 채병록

기간: 2021.05.20-06.15  
장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기획: 경기도미술관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이 전시의 주 매체는 평화의 소망을 담은 깃발 상징물이다.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는 이 전시는 바람(Winds, Wishes)이라는 중의적 주제를 5명의 작가의 해석을 어우러진 물결로 만들어 평화누리 일대에 설치했다. 깃발을 날리게 위해서 세운 깃봉을 보면 그 위치와 형태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한듯하다. 깃발은 국가, 단체, 권위 등을 상징하는 매체이다. 이 전시의 깃발은 분단의 의미를 담은 만장기와 날아오르는 방패연의 형태로 기획, 제작되었다. 100개의 깃발은 전시 기간 동안 염원과 외침이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각각 설치되었으며 문자, 자연, 색, 율동 등을 소재로 작가의 생각과 손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미지화되었다. 또, 이 전시에는 다양한 시각아이덴티티가 적용되었는데 ‘100개의 바람’ 역시 전체 전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이미지로서 바람길을 상징한다.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전성에 대한 상징 의미로, 바람(風, Wind)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방패연의 꼬리를 상징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쓰인, 이 전시를 아우르는 상징이다. 작가들은 전시 설치 후 함께 모여 비무장지대를 위한 시각모임을 결성했고 각자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그려내기로 생각을 나누기도 했다.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함께 한, 많은 영감을 받은 계기였다.



The exhibition is expressed through symbolic flags that capture people's hope for peace. It largely consists of four parts and the works of five artists under a theme with a double meaning (winds & wishes) that were installed harmoniously like waves around Imjingak Pyeonghwa Nuri Park. For the flagstick, which was built to fly flags, artists seem to have considered many things for its location and form at the time of production. The general form of a flag is also a long-standing historical medium that symbolizes a nation/organization or represents authority. For this exhibition, flags were designed and produced with structures of banners that referred to the meaning of Korea's national division as well as bangpaeyeon, which are shield-shaped kites that fly upward in the air, breaking away from the notion of a typical flag.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100 flags were installed in two rounds under each theme of desire and shouting, and were composed sequentially using images such as text, nature, colors, and dance through each artist's thoughts and hands. Various visual identities were applied to this exhibition, and "100 Winds" is also an image covering the entire exhibition, opening the path

to the wind. The number 100, which means perfect, “wind,” both in English and in Chinese (風, Wind), and the word “hope” in Korean were written in a shamanistic sense on the tails of kites. Those words were also the symbols of the flag part of the exhibition. After the exhibition was installed, the artists got together to form a visual meeting for the DMZ, as older artists had done earlier, and they shared their thoughts to draw messages in different languages. Lastly, it was also an honor to be with more experienced artists of the times, and as an expressive artist I was inspired to work as hard as possible.

## 다시 바라보기

채병록

Chae Byungrok

김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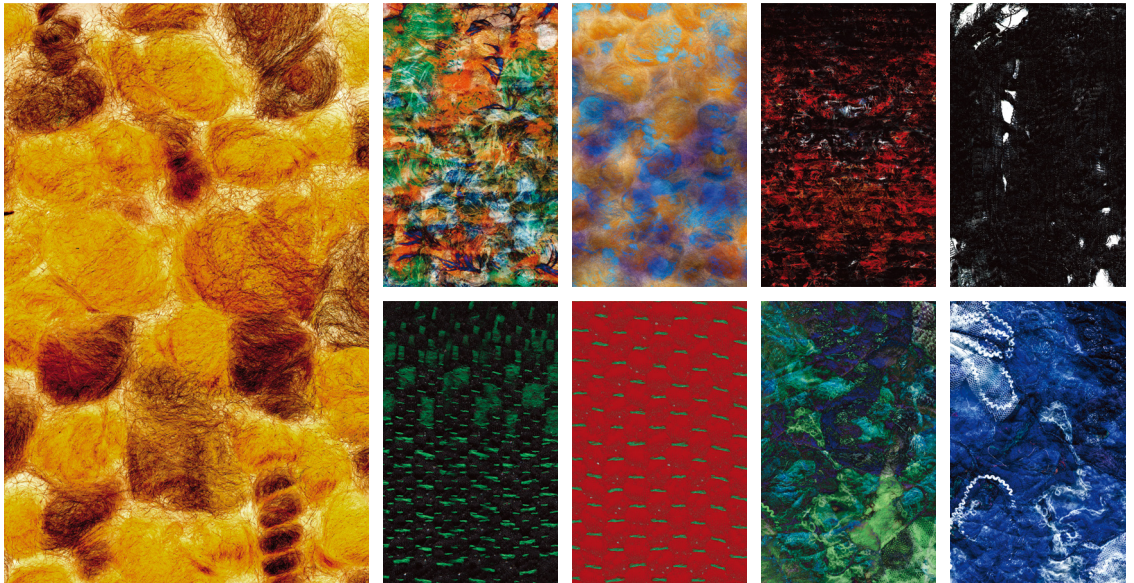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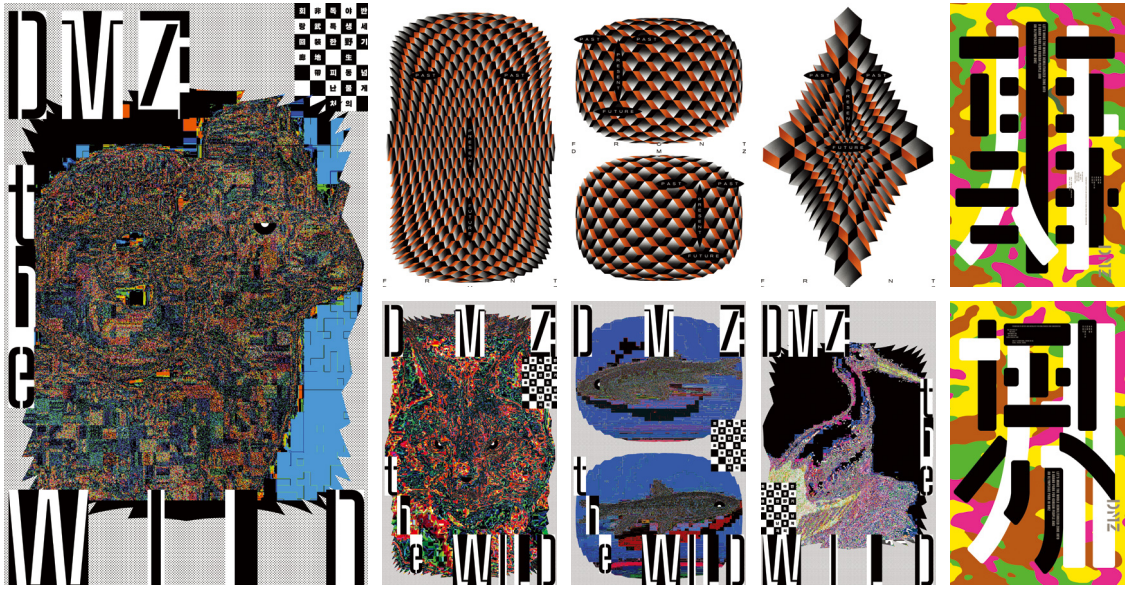
Jaei

다시 바라보기는 ‘전쟁과 파괴를 넘어 평화와 생명-비무장지대’ 도록의 작품 원화를 그래픽과 텍스타일로 재해석한다.

채병록은 비무장지대의 과거, 현재, 미래 흔적을 날카로운 기학적 형상의 얼굴로 표현하여 분단을 바라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과 희망의 앞날을 이야기한다. DMZ에 박혀 있던 낡은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낱말을 다채로운 카모플라주 패턴 위에 새롭게 레터링 했다. 더불어 비무장지대의 환경과 생태의 모습을 관찰자 시점에서 그려냈다. Front DMZ의 방대한 기록은 작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얻은 이야기는 그래픽이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깃발 위에 얹혀졌다. 앞으로도 동일한 주제를 모티프로 그려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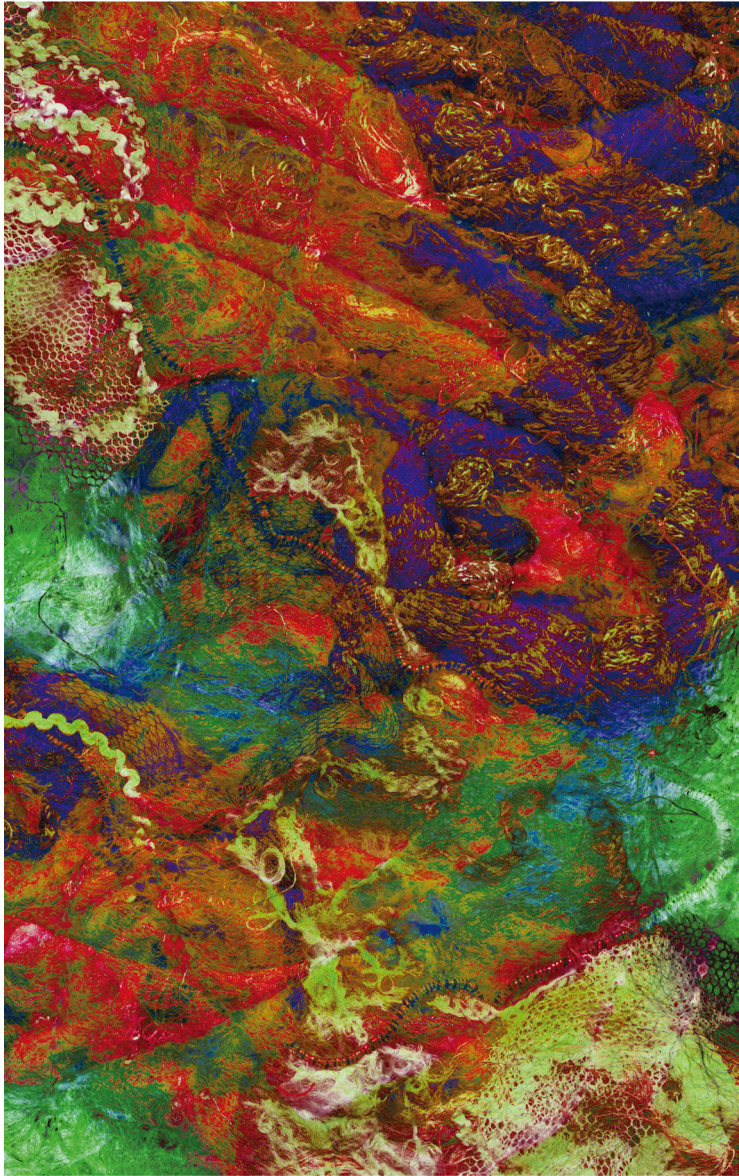
김재이는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민중미술 원화를 밑바탕으로 실로 그림을 그리듯 비조형적인 불안한 형태를 만들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추상적인 색채와 형상으로 대지를 가득 메운 과거의 사진과 조소 등 이미지들은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삶의 본질에 관해 관객에게 던지는 일종의 반복적 질문이다.

두 작가는 동시대를 사는 관객이 비무장지대라는 낯선 공간을 마주하며 자연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채병록 Chae Byungrok



김재이 Ja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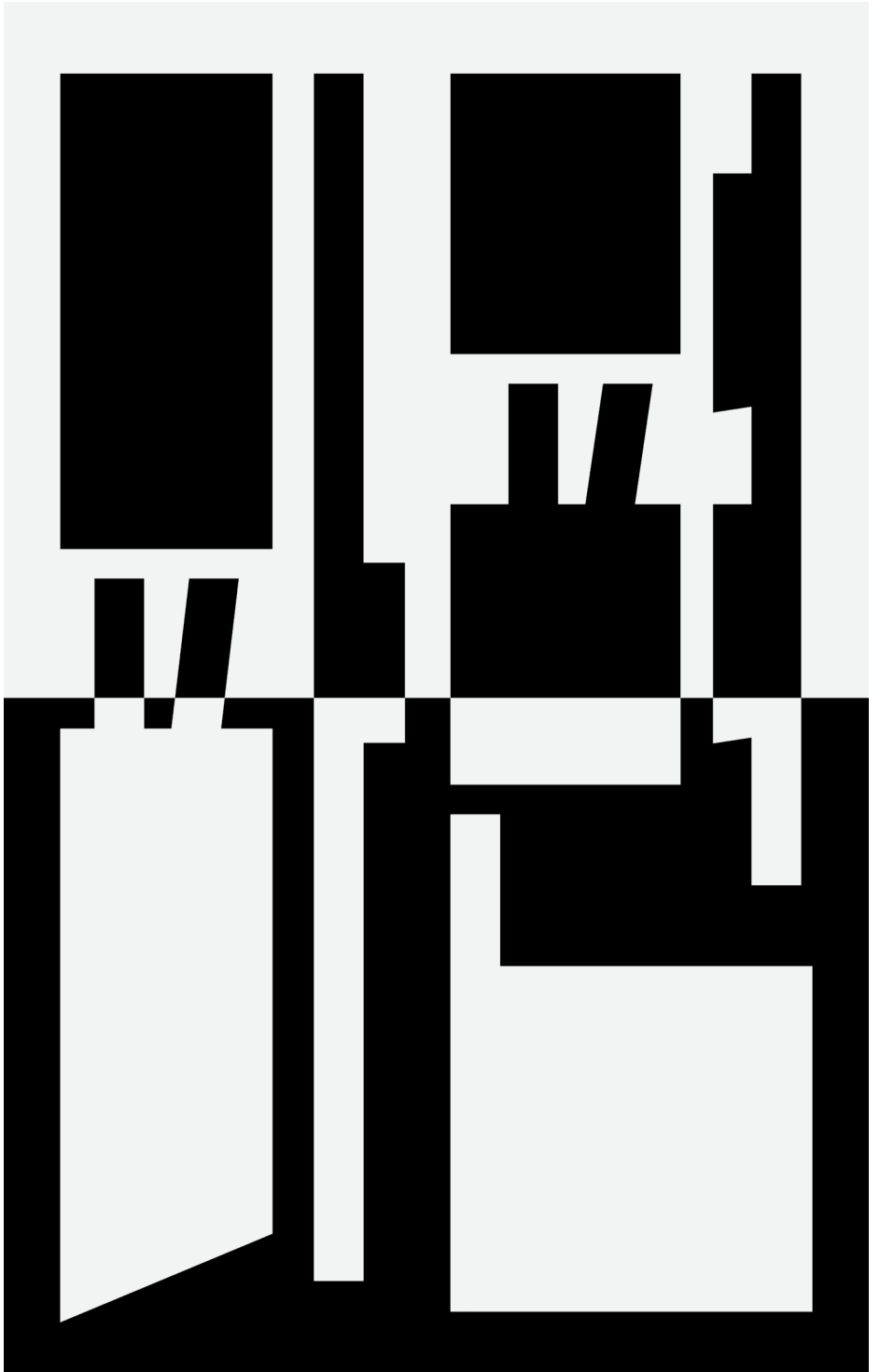


## 생명의 울동

용세라  
Yong Sera

아픔의 역사를 견뎌낸 후, 평화로운 긴장감으로 가득찬 DMZ에는 여전히 꿈틀대며 태동하는 이곳만의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의 울동은 단절의 현실을 뛰어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깃발로 형상화되는 네모난 사각형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래픽은 현실을 거스르고 싶은 우리들의 염원과도 같다. 살아 움직이는 것 생동감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곡선과 원색은 DMZ에 피어난 자연을 상징한다. 가슴 아픈 군사적 대치 상황이 만들어낸 DMZ의 멸종 위기의 동식물과 천혜의 자연 풍광은 모순처럼 눈부시게 아름답다.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풍광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가 지속된 분단의 역사 탓이라는 사실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DMZ에 가득한 자연은 우리에게 한 줄기의 위로일터. 특이한 역사를 가진 이 곳, 언젠가 바뀔 이 곳의 운명이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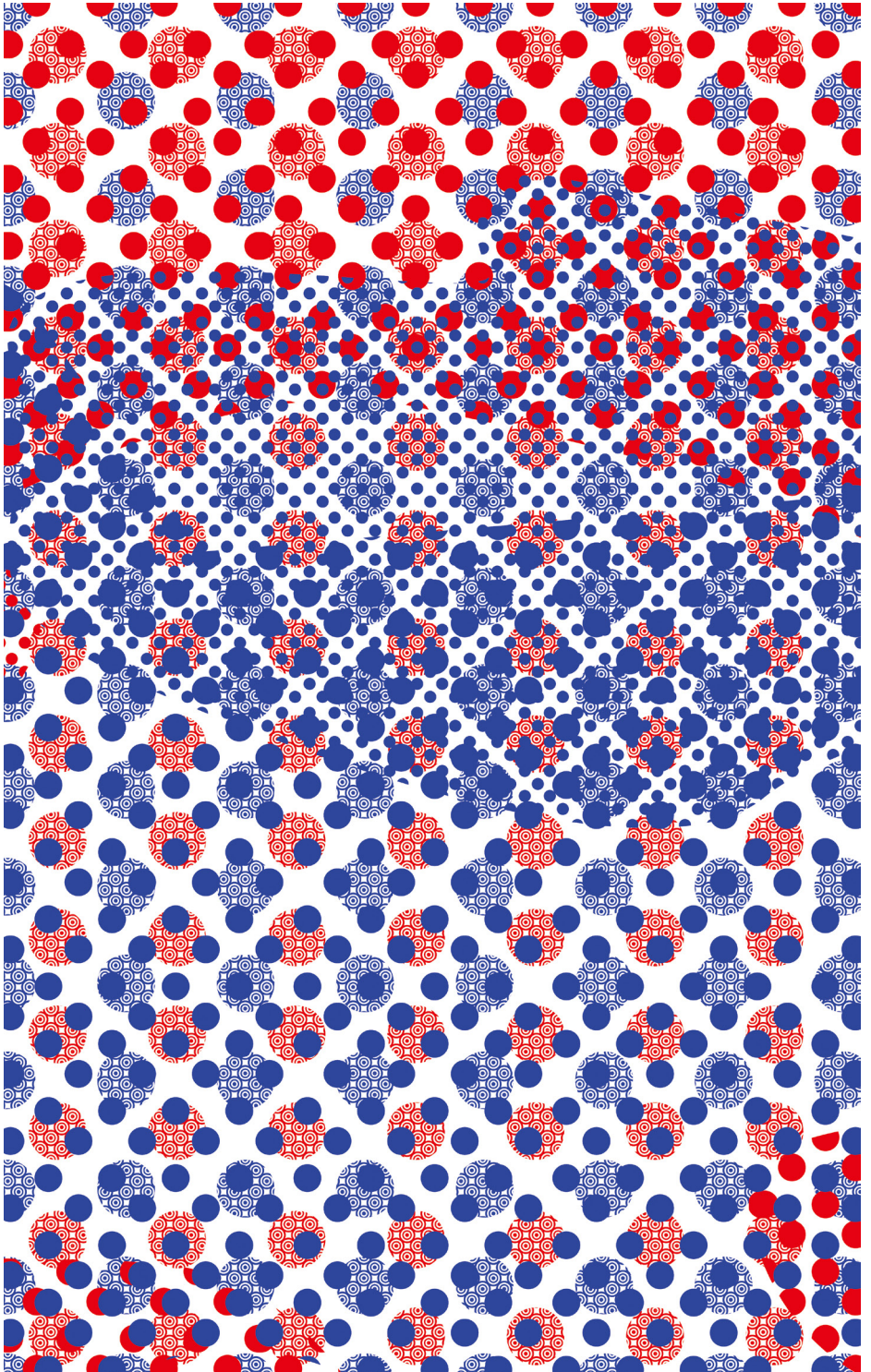
## 평화의 구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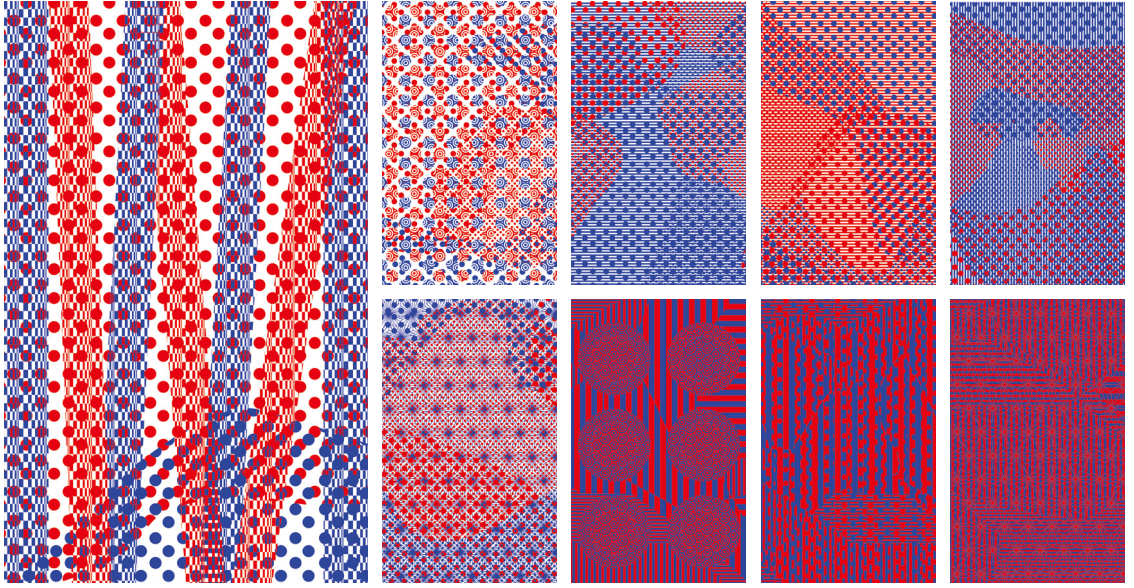
김태룡  
Kim Taeryong

조용한 불협화음. 철망 너머의 풍경, 분위기, 흘러가는 임진강, 하늘을 넘나드는 바람과 새를 바라보면 일견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수많은 감정과 세월이 녹아 넘실거린다. 사람이 세운 장벽 너머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시선은 한마디 말없이 조용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조용함이 아닌 묵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단어일 테다. 이 작품은 글자를 소재로 한다. 글자는 본질적으로 손의 움직임(쓰기)과 시각적인지(읽기)가 서로 긴밀히 연계하며 빚어낸 결과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시(詩)의 구절은 글자를 '쓰는' 손과 '읽는' 눈의 감각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립하게 한다. 왼쪽으로 쓰고 오른쪽으로 읽거나, 위아래 획이 반대로 뒤집힌 획은 서로 대립하고 삐걱대면서 한 몸의 글자를 이룬다. 손과 눈이 따로 노는 글자들은 읽힐 듯, 읽히지 않을 듯, 결국은 읽을 수 있는 평화의 언어로서 DMZ의 어제와 오늘, 조용한 불협화음을 은유하며 내일의 평화를 꿈꾼다.

멋진 전시, 멋진 작품, 멋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뻐다. 임진각의 바람을 맞으며 흥미로운 작품들을 관람한 경험은 여러모로 새로웠다. 글자를 작업하는 과정은 보통 데이터에서 시작해 데이터로 끝난다. 몇천 개에 달하는 글자를 작업하지만, 데이터 용량은 3MB(메가바이트) 정도에 불과한 작고 아담한 세상이다. DMZ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난 몇 년간 컴퓨터 속에 깊이 파묻혀 작업하던 나를 누군가 삼으로 떠 현실에 올려놓은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반복**

제임스 채  
James H. Chae

색은 물질적 존재를 총칭하지만, 동시에 명확하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빨강과 파랑은 작가 고유의 정체성이자 시대의 현실을 담는 균형의 도구이기도 하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함께 엮어내고자 했다. 교포라는 나의 정체성은 이 작업에서 매우 큰 의미로 작동했다. 이 전시는 내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또 많은 생각을 건드리기도 했다. 한반도라는 하나의 땅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고민하게 됐다. 14



